

보도자료



| | |
|------|--|
| 보도분류 | 브리핑() 보도자료 제공(✓) |
| 보도일시 | 2023. 5. 9.(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과 | 서비스산업유치과 |
| 담당 | 과장 안도현, 담당 주태근(032-453-7392) |

인천시,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 시동

인천경제청, 9일 '메타노믹스 2023' 행사 개최...비전 선포·양해각서 체결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블록체인 연계사업 발굴 등 통해 블록체인 허브 선도

-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허브 도시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유정복 시장, 김진용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메타노믹스 2023' 행사를 개최, 인천시의 블록체인 비전을 선포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미션을 공유하고 인천시가 디지털 경제 전환을 이끄는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태어나기 위해 추진됐다.
- 이날 행사에서 인천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시장에 대응하고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육성과 앵커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금융·바이오·환경·항만·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자유구역' 조성, △블록체인 신기술 개발 지원과 블록체인 연계사업 발굴 추진, △블록체인 기술 서밋 포럼 개최, 산·학·연·관이 함께 하는 디지털 경제 산업협회 설립 추진 등을 밝혔다.
- 이와관련 인천시는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총 사업비 133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공유주차장, 플라스틱 수거·재활용 등 블록체인 실증 시범서비스를 발굴하고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 인천시에 따르면 실제로 인천 지역 디지털 기업 수는 6%로 지방(2~3% 수준)과 비교해서는 많은 편이고 매출액은 유사하거나 적은(경남 4%, 인천 3%) 수준이지만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전문 인력이나 원천기술 등은 부족하다.
- 이날 행사에는 해외 참여기업으로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 반도체 설계 회사인 AMD, 대규모 분산 저장 기술 분야의 그레이트히트(GreaterHeat) 등이, 국내 기업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K-village'를 운영하는 애니큐브(Anicube),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기업 카탈라이즈리서치(Catalyze Research) 등 총 15개 기업이 참석해 인천시의 블록체인 비전 선포에 뜻을 함께 했다.
- 이와함께 세미나도 개최돼 레온 싱 풍(Leon Sing Foong) 바이낸스 아태본부 대표가 '가상자산거래소와 정부의 협업 모델'을, 스티브 박(Steve Park) 로블록스 아태지역 대외정책 대표가 '로블록스가 그리는 메타버스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는 등 국내외 5개 블록체인 기업의 관계자가 미래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 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루고 국내외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투자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유정복 인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인천시는 기업, 학계, 정부기관 등과 협력,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장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인천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끄는 허브 도시로서 미래 지향적인 초일류 도시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 사진은 행사(15:00)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